

## 日本 古墳時代の 하니와(埴輪)의 服飾에 관한 研究

李 子 淵

新羅大學校 自然科學大學 衣類學科

### A Study on Haniwa Costume in the Goboan Period of Japan

Ja-Yeon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illa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I. 序 言

II. 古墳時代の 社會

III. 하니와의 服飾

1. 男子服飾

2. 女子服飾

3. 頭飾과 裝身具

IV. 하니와의 服飾과 固有服飾과의  
關係

V. 結 言

參考文獻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aniwa costume in the Goboan period of Jap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Haniwa costume consisted of two pieces, the upper one and the lower one. Man wore Jacket and Pants, woman wore Jacket and Skirt; besides, they wore several ornaments such as hats, necklaces, earrings, bracelets.
2. When it was introduced, two-piece costume signified, symbolically, the authority of the chieftain and his near men wore it.
3. Before it was introduced, their proper costume had been the same kind of costume as Whoengpok-costume and Gwandu-costume, which was the primitive costume in the South countries. That costume was fit both for the hot and wet nature of Japan and for the working lower-class, so it was continuously worn by the lower-class after two-piece costume had been introduced.
4. In the Goboan period of Japan, a unified government with the class ruling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Thus, this social order was reflected in costume as a whole, and costume had such class-oriented features.

## I. 序 言

우리나라와 周邊國家인 中國, 日本에 있어서 服飾의 두드러진 文化接變現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타나, 이들 세나라의 服飾이 거의 같은 양식을 띠고 있었던 때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中國과 日本의 服飾文化에 대한 研究는 우리나라의 服飾을 研究함에 있어 看過할 수 없는 分野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 服飾史의 研究는 주로 中國指向性 일변도의 研究史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는 三國統一을 前後하면서부터 朝鮮時代末까지 中國의 興亡盛衰에 密接한 影響을 받아야 했던 1,300여년 동안, 請賜와 賜與에 의해 施行된 服屬關係를 맺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우리옷과 中國制 併用에서 오는 二重構造 現象 때문이라 생각되며 우리의 모든 史料가 中國과의 關係를 벗어날 수 없어, 자연히 文獻을 바탕으로 했던 우리의 服飾史 研究도 中國의 그것들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sup>1)</sup>. 이제는 服飾史 研究接近의 視野를 中國과의 關係를 並行하면서 北方系로 擴散시킴과 동시에 研究의 空白時期인 伽倻과 百濟, 그리고 高麗史는 日本에 남아있는 遺物들과 日本과의 關係에서 찾아내어 매워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韓國服飾 중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現 狀況에서, 日本의 服飾과 文化에 대하여 考察해 봄으로써, 우리 服飾의 深度 깊은 研究를 위한 理論的 土臺를 마련함과 동시에 日本의 服飾文化와 社會를 理解하기 위한 資料로 活用하고자 함에 그 目的을 둔다. 우선, 日本 最初의 統一政權이 成立된 時期인 古墳時代의 服飾에 관한 것으로서 이 時代의 考古學的 資料의 하나인 하나와(埴輪)에 表現된 服飾을 중심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하나와는 일본 전역에 걸쳐 普遍的으로 存在하고 있으며, 服飾의 表現에 있어 寫實이 가능하고, 또 衣服이나 裝身具 등 着裝의 實際를 알 수 있고, 腐敗하지 않고 볼에 타지 않는 屬性때문에 여기에 表現된 服飾이나 裝身具를 통하여, 당시의 服飾樣相을 잘 알 수

는 資料이다. 本 研究에서는 比較的 保存狀態가 良好하고 衣服의 表現이 分明한 것을 採擇하여, 여기에 表現된 服飾은 어떤 種類가 있으며, 그 特徵은 무엇인지 文獻과 寫眞, 그리고 遺物의 分析을 통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그리고 古墳時代 以前의 固有服飾의 樣相에 대해 알아보고, 하나와 服飾에 있어 導入 初期에는 누가 왜 着用하였는지, 그리고 하나와의 服飾과 固有服飾과의 關係에 대해서도 考察해 보고자 한다.

## II. 古墳時代의 社會

日本의 先史時代는 繩文時代와 弥生時代로 나눌 수 있는데, 繩文時代는 대략 紀元前 9,000년경부터 紀元前 3世紀 頃까지의 時代로, 이 시기는 狩獵과 採集이 生産活動의 중심이 되는 時代였다. 弥生時代는 벼경작과 金屬器를 기초로 한 大陸文化의 受容이 이루어진 時代로서, 대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에 이르는 시기이다. 弥生時代に 이어 계속되는 古墳時代라 하는 약 4세기에 걸치는 時代가 있다. 古墳이라는 것은 權力과 地位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묻은 높게 흙을 쌓아 올린 거대한 묘를 말하는데, 이 古墳은 약 3세기말 4세기 초부터 7세기 사이에 많이 만들어졌다. 즉, 農耕生活이 대부분의 지방에 보급됨에 따라 경제력이 점차 강하게 되어 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기에 이르렀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생활상태에도 큰 차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時代에 지배자의 묘가 만들어졌으며, 그 유적으로는 많은 유물이 副葬되어 있어, 이러한 유물을 통하여 당시의 文化發展의 樣相과 中國大陸, 우리나라와의 關係, 그리고 당시 복식문화의 正황 등을 알 수 있다. 古墳은 앞부분은 方型이고 뒷부분은 圓型이어서 前方後圓墳 또는 열석구멍형 古墳이라고 불리는데, 646년 薄葬令으로 인하여 그 規模가 縮小되기 시작하였다. 古墳이 가장 많이 集中된 곳은 畿內地方과 南九州의 宮崎縣地方이며, 대체로 全國에 걸쳐 고루 散在해 있다.

1) 고부자, 「의생활의 연구」, 최인학, 최래옥, 임재해 편, 『韓國民俗研究史』, 民俗學叢書 5, 지식산업사, 1994.

### Ⅲ. 하니와의 服飾

#### 1. 男子服飾

古墳에서는 冠과 帶金具를 비롯한 여러가지 服飾과 거울과 劔, 巫具, 馬具 등이 발굴되었는데, 이 중 服飾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니와가 발굴되었다는 점이다.

하니와의 起源에 관해서는 『日本書紀』에 垂仁天皇 때 殉死의 風俗을 없애기 위해 사람과 말 등의 모양을 흙으로 만들어 묘에 세웠다고 하는 설이 있으나, 초기의 古墳에서는 하니와가 發見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설은 傳承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sup>. 人物하니와에는 武人이나 巫女, 농민을 비롯하여 貴人, 從者, 거문고를 타는 악사, 鷹匠, 馬子, 아기를 보는 女子, 젖을 먹이는 女子 등 다양한 모습으로 表現되어 있다. 男性像에서 가장 量的으로 현저하게 많이 發見되고 있는 것이 武人의 像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群馬縣 太田市 九合에서 出土된 하니와를 들 수가 있다(그림 1). 이것은 금속이나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은 右襟으로 되어 있고 어깨받이가 달려 있다. 뺨받이와 遮陽이 있는 투구를 쓰고 토시를 着用하고 있으며, 활팔찌를 두른 왼손에는 화살을, 오른손에는 큰 劔을 들고 있다. 下衣의 바지는 무릎부위에 끈이 묶여있고 허리에서 무릎까지는 풍성하고 무릎아래는 현재의 바지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武人의 하니와는 이와같이 갑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허리에 칼을 찬 모습이 일반적이나, 같은 곳에서 出土된 것 중에 <그림 1>의 하니와와 동일제작자의 것이라 생각되는 것으로, 화살통을 찬 자, 방패를 든 자의 하니와도 있다. 갑옷을 입은 하니와의 경우는 上衣는 갑옷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下半身의 衣服만 알 수 있을 뿐이나, 武人의 하니와에도 茨城縣 結城郡 八千代村 出土의 男子 하니와와 같이 갑옷을 着用하지 않은 것도 있어 상하의 衣服의 形態를 알 수가 있다(그림 2). 이 하니와는 頭部에 비하여 體幹부와 팔부위가 작고 하체는 크게 表現되어 있는데, 衣服은 上衣와 下衣가 나누어져 있



<그림 1> 武人像  
(日本服飾史, 東京國立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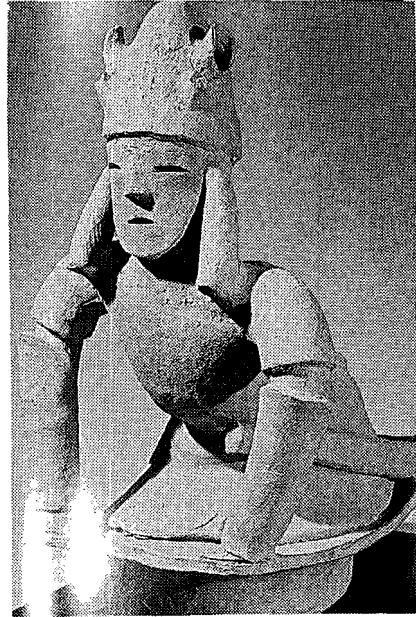
<그림 2> 武人像  
(原色日本の美術 1, 奈良 大和文華館)

2) 北村哲郎, 李子淵 譯, 『日本服飾史』, 耕春社, 1999,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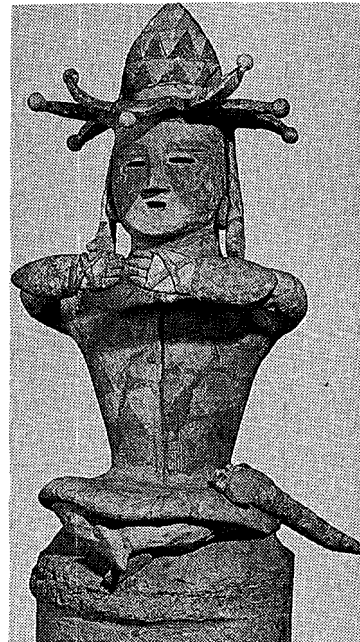
는 襦袴의 衣服을 着用하고 있다. 머리는 미즈라를 크게 하여 내려뜨린 후 冠을 쓰고 있으며, 比較的 큰 귀고리를 하고 있다. 上衣는 整領에 筒袖로 되어 있고 여밈은 두 곳에 작은 곶모양의 매듭으로 처리되어 있다. 下衣는 바지를 입고 있는데 무릎아래 부위에는 끈이 달려 있고 바지부리는 무릎에 끈을 묶었기 때문인지 판타론바지와 같이 밖으로 퍼진 形態의 것이다. 목에는 둥근 구슬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허리에는 좁은 帶를 두르고 거기에 칼을 차고 있다. 冠에는 적색과 흰색으로 무늬가 그려져 있고, 눈에서 턱아래까지는 적색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으며, 입주위에는 암청색, 上衣의 허리띠 아래부위와 下衣全體에는 흰색의 둥근원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얼굴의 彩色이나 衣服의 색은 단지 무의미하게 장식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습속이나 實際의 衣服의 한 측면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茨城縣 西茨城郡 岩瀬町에서 出土된 높이 55.5cm의 무릎을 꿇어 禮를 갖추고 있는 하니와가 있다(그림 3). 이 하니와의 服飾을 보면, 筒袖의 上衣를 着用하고 있으며, 팔에는 토시를 끼고 허리에 帶를 띠고 칼을 차고 있다. 머리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양어깨까지 내려오는 굵은 미즈라형을 하고 冠帽의 좌우에 뿔이 달린 원추형의 모자를 쓰고 있다. 관모를 쓴 하니와 중 뿔이 달린 예는 거의 없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금관총에서 出土된 금제의 뿔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이 하니와는 당시의 伎人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葬儀의 禮 중 한 면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의 하니와는 이것외에 茨城縣 睦田町出土에서만 그 예를 볼 수 있다.

다음은, 높이 91cm의 정좌한 男子하니와상이 있는데, 衣服을 살펴보면, 다른 하니와에서와는 달리 특이한 冠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 冠은 삼각형으로 되어있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부분에는 적색으로 채색된 삼각형의 무늬가 두줄로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遮陽의 부분은 불가사리모양으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이 끝에는 작은 방울이 장식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도 역시 적색으로 채색이 되어있다. 左襟으로 된 筒袖의 上衣에도 적색으로 채색된 삼각형의 무늬가



<그림 3> 무릎을 꿇은 남자  
(原色日本の美術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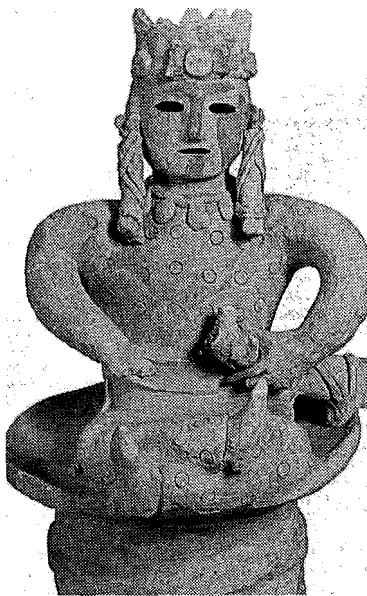
<그림 4> 정좌한 남자  
(原色日本の美術 1, 福島 磐城高校)

장식되어 있고, 허리 부위는 띠를 두르고, 여기에 활팔찌와 칼을 차고 있다. 下衣로는 바지를 입고 있으나, 정좌하고 있고 또한 上衣의 단부위가 무릎까지 덮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인체비례상 하체가 상체보다 현저히 작게 표현되어 있다. 머리모양은 어깨에 닿을 듯한 길이의 미즈라형으로 되어 있고 귀고리를 달았으며, 눈과 볼 주위는 적색의 삼각형 모양으로 채색이 되어 있다.

또, 後期の 것으로 群馬縣 群馬郡 龍川村 八幡原 出土의 男子하니와는 앉아있는 像으로 冠을 쓰고 上衣와 下衣로 구성된 2部式의 衣服을 입고 있다(그림 5). 冠은 두정부분이 톱니모양으로 되어 있어 金冠과 흡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삼각형의 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머리모양은 앞가슴까지 내려오는 미즈라머리를 하였는데 두줄의 끈이 나선모양으로 감겨 있다. 그리고 얼굴에는 이마와 코, 턱, 볼 부위에 적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고, 구슬모양의 큰 장식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으며, 왼쪽 허리에는 큰 칼을 차고 있

다. 上衣는 筒袖로 되어 있으며, 上衣와 下衣에 물방울무늬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매를 사육하는 사람의 하니와가 있는데, 이것은 重弧紋 등으로 장식이 된 모자를 쓰고 손등을 덮는 덮개를 하고, 칼을 찌으며, 활통을 허리에 매달았다(그림 6). 이것은 上衣와 下衣의 2部式 衣服을 着用하고 있으며, 上衣는 左襟으로 가슴에 끈 두개가 매어져 있고 길이는 비교적 길어 무릎조금 위까지 오는 정도이다. 허리에는 띠가 매어져 있고 여기에 칼을 차고 있으며, 下衣로는 바지부리가 오무러진 바지를 입고 있다. 上衣와 下衣에는 모두 빗살무늬로 縷이 그어져 장식되어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에다, 왼손에는 매를 잡고 서 있는데, 활팔찌를 끼고 칼을 찬 모습은 당시의 정장이었으므로 매 사육자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듯하다. 목에는 구슬을 꿰어 만든 목걸이를 하고 있다. 매를 기르는 풍습은 아시아 유목민 중에서 발달한 것이, 中國이나 印度에 들어와서는 귀족들의 애완동물로 애호되었는데, 日本에는 5세기경에 이 풍습이 전해졌다<sup>3)</sup>고 한



<그림 5> 정좌한 남자  
(原色日本の美術 1, 奈良 天理參考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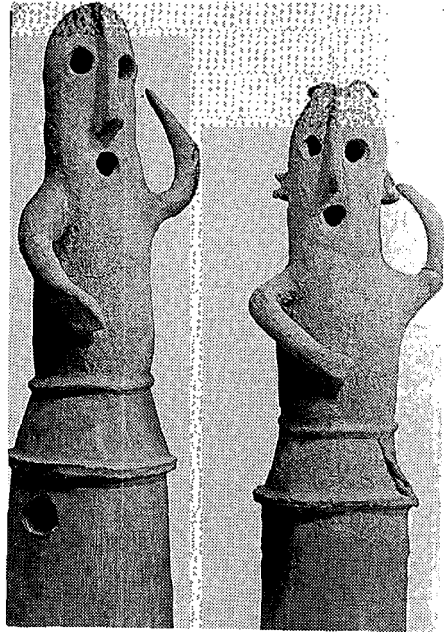


<그림 6> 매를 든 남자  
(原色日本の美術 1, 奈良 大和文華館)

3) 齊藤忠, 吉川逸治, 『原色日本の美術1』, 小學館, 1970, p.159.

다. 매는 꼬리부분에 방울이 달려있고 부리는 크고 예리하며, 깃털은 線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걸터 앉아서 거문고를 타는 男子의 하나와가 있는데, 이것은 가슴까지 내려오는 미즈라 머리에 冠을 쓰고, 작은 구슬로 연결된 목걸이의 중앙에는 큰 구슬이 장식되어 있다(그림 7). 손에는 활팔찌가 끼여있고 허리에 三角文樣이 새겨진 帶를 매고 있으며, 칼을 찬 禮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악사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마와 양볼에는 적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고 양미간이 비교적 넓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입은 옆으로 좁고 길게 묘사되어 있으며, 콧망울은 둥글게 표현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매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듯하다. 古墳時代의 악기로서는 현존하는 것으로 방울밖에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하나와에는 거문고외에도 북이나 장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장례 등에 사용된 듯하다. 전술한 하나와의외에도 농민, 工人과 같은 노동자의 모습,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데(그림 8), 여기에는 모두 허리에 帶를 매었을 뿐, 자세한 부분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층계급에 속하는 人物像에 한하여 제



<그림 8> 춤추는 남녀  
(原色日本の美術 1, 東京國立博物館)



<그림 7> 거문고를 타는 남자  
(原色日本の美術 1, 群馬 相川考古館)

작자는 특히 간략히 표현을 하였는지, 아니면 강조할만한 衣服의 특징이 없다고 생각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표현이 간결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男子하나와에 나타난 衣服의 形態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衣服은 上衣과 下衣가 나누어진 襦袢가 基本服飾이며, 古代의 文獻에는 衣, 袴이라 기록하였는데, 衣는 자락이 臀部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領은 盤領과 垂領의 두 종류가 있다. 여밈의 형식은 左襟이 많으나, 드물게 右襟도 있는데, 여밈의 처리는 위아래 두곳을 끈으로 매 고정시켰거나 가슴에 달은 끈만으로 고정시킨 경우도 있다. 소매는 모두 簡袖이며, 소매부분을 생략하여 표현한 것도 있다. 허리에는 帶를 매었는데, 武人들은 여기에 칼과 활 팔찌를 찻고, 농민들은 농기구를 차고 있다. 帶는 끈모양으로 된 것, 폭이 넓은 것이 있고 한 겹으로 매어 그 나머지는 길게 드리웠다. 男子의 下衣는 오늘날의 바지와 비슷하며, 바지통은 넓다. 둔부에서 무릎위까지의 形態는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만큼 여유롭게 만들어져 있고, 바

지자락은 판타론바지와 같이 벌어져 있는 것과 바지자락이 오무러진 것이 있는데, 바지자락이 벌어진 것은 무릎아래부분을 끈으로 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2. 女子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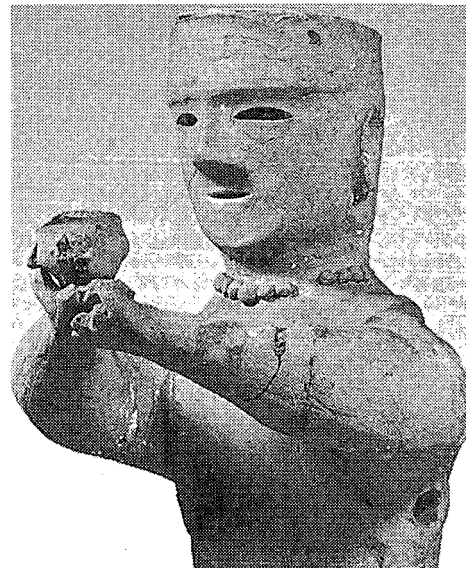
女子의 하나와에는 巫女, 아이를 안고 있는 女子, 향아리를 머리에 이고 아이를 업고 있는 女子, 그리고 춤을 추는 女子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巫女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巫女 하나와상은 東日本과 西日本에서 出土가 되고 있으나 비교적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전형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群馬縣 邑樂郡 大泉町 古海 出土의 앉아 있는 巫女像이다(그림 9). 앉아있는 하나와로는 男子의 것은 많이 보이지만, 女子의 것은 이 하나와가 유일하다. 이 하나와는 巫女服飾의 특징을 모두 갖춘 것이지만, 멜빵과 띠에 가려서 上衣의 자세한 부분은 잘 표현되어 있지 않고, 껌도 앉아 있는 자세로 말미암아 상당 부분 생략이 되어 있다. 이 하나와는 높이 약 68cm의 비교적 큰 것인데, 그 服裝을 살펴보면, 머리形態는

頭頂에서 하나로 묶어 이것을 편편한 판자와 같은 모양으로 하였으며, 이마 위쪽에는 비녀가 꽂혀 있다. 목에는 옥과 같은 것으로 연결하여 만든 목걸이를 두줄로 하여 걸었으며, 목걸이와 같은 재료로 보이는 것으로 손목에 한줄, 발목에 두줄이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簡袖의 上衣을 입었는데, 上衣의 위에는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겨드랑이 아래로 囊이 매어져 있고 그 위로 멜빵이 걸쳐져 있다. 下衣로는 자락이 밖으로 퍼진 치마를 입고 있으며 치마의 길이는 무릎을 덮는 길이인 듯하다. 허리에는 三角文樣이 새겨진 띠를 앞쪽에서 매고, 그 끝은 드리워 내렸다. 왼쪽허리에는 五鈴鏡과 주머니를 차고 있다.

또 古墳時代 후기의 것으로 茨城縣 鹿島郡에서 出土된 높이 68.5cm의 향아리를 들고 있는 하나와상이 있다(그림 10). 이것은 두정부분은 소실이 되고 없으나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묘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울린 머리를 한 것처럼 보이며, 양 볼부분에는 삼각형의 무늬가 적색안료로 칠해져 있고, 목에는 玉으로 연결된 목걸이를 하고 있다. 동체 부위에는 멜빵이 둘러 매어져 있고 두손으로 작은 향아리를 들고 앞으로 내밀고 있는데, 손가락은 파손되었다. 神事에서 멜빵을



<그림 9> 巫女像  
(原色日本の美術 1, 東京國立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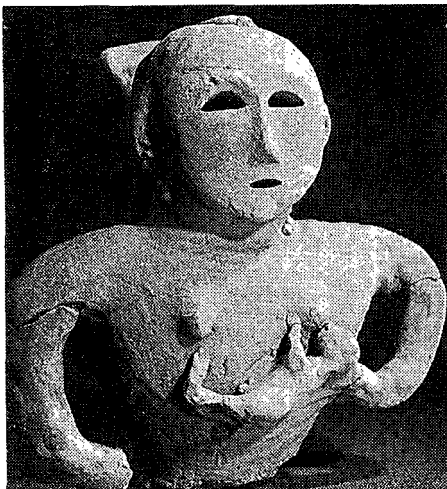


<그림 10> 향아리를 든 여자  
(原色日本の美術 1, 東京大學)

매는 것은 古代의 풍습이었으며, 또 항아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死者에게 봉사하는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되며, 古代의 宮女나 巫女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人物 하나와에는 正裝차림의 단정한 貴人이나 豪族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 반면, 농구를 든 농부라든가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서민적인 것도 있다. 茨城縣 勝田市 勝倉大平古墳에서 발견된 것으로 授乳하는 어머니를 표현한 상채판 남아 있는 하나와가 있다(그림 11). 얼굴은 비교적 납작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눈은 반월형에 입은 작게 표현되어 있다. 눈에서 볼부위까지 걸쳐 적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귀고리와 목걸이를 하고 있다. 머리모양은 뒤로 묶어서 납작하게 하였고,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이다. 목부위에 네크라인인 듯한 線만 적색으로 등글게 그려져 있을 뿐, 服飾은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 8>의 춤을 추는 여자의 衣服도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나, 옆의 男子와 같은 원피스형식의 衣服에 허리에는 帶가 매어져 있다.

이상, 女子 하나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女子의 경우는 巫女像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服飾은 衣와 裳으로 구성되어 있다. 上衣의 衣는



<그림 11> 授乳하는 어머니  
(原色日本の美術 1, 茨城 勝田市 公民館)

男子의 경우와 거의 차이는 없으나, 下衣의 糞은 스카트식의 것으로 자락은 무릎 부근이나 그보다 약간 더 긴 정도의 것이다. 巫女는 結髮하고 멜빵을 메고 도구를 드는 등 다른 女子 하나와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 머리모양은 頭頂部에서 하나로 묶어 올려서, 머리위에 등근 판을 얹은 듯한 모양으로 하였다. 멜빵은 양 어깨에서 양 겨드랑이 부분으로 교차시킨 것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로 경사지게 걸쳐진 것 두 종류가 있으며, 도구로는 방울과 거울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허리에 매달려 있다. 가죽주머니는 日本 武尊傳説 속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遼石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목걸이, 팔찌, 足玉 등과 같은 장신구도 다른 女子 하나와에 비하여 현저히 많이 장식되어 있다. 하나와에 표현된 巫女의 服飾은 제사 때에 着用하는 정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례행사의 服飾은 일상복이 수시로 변화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변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후세의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우리나라의 巫俗服飾과의 比較研究도 기대가 된다<sup>4)</sup>. 그의 授乳하는 女子, 항아리를 든 女子 등의 하나와가 있고 이러한 하나와의 服飾은 巫女像에 비하여 衣服의 표현에 생략된 부분이 많다.

### 3. 頭飾과 裝身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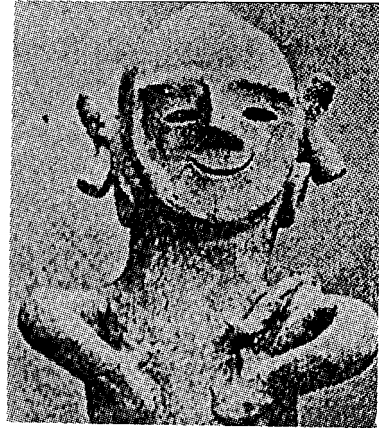
하나와 人物像에 나타난 것에 의하면 男子는 머리 중앙에서 좌우로 나누어서 머리를 양쪽 귀 부위에서 묶은 미즈라를 하고, 女子는 올린 머리형인 髷를 하고 있다. 미즈라형은 머리가 어깨에 닿을 정도로 내려오는 형과 귀 주위에서 짧게 묶은 형의 두가지가 있는데, 武人과 貴人은 긴 미즈라를 하고, 농부는 짧은 미즈라의 形態를 하고 있다. 武人과 貴人의 경우, 冠帽을 쓰고 투구를 쓰기에는 짧은 형의 묶은 머리는 불편하며, 또한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형은 노동하는 사람의 동작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머리형은 職能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身分階級을 나타내기도 하였던 것 같다. 특

4) 田辺昭三, 「古墳時代の服飾と裝身具」, 『服裝文化』, No. 152, 1976, p.38.



별한 예로서 首長이나 왕에 한하여는 身分階級을 표시하기 위한 고정된 머리형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千葉縣 山武郡 横芝町 姫塚古墳 出土의 男子하니와상은 특이한 모습의 鬘을 하고 있는데, 이 하니와상은 턱수염을 기르고 비교적 큰 미즈라를 하고 있다(그림 12). 이것은 다른 하니와의 머리모양과는 달리 좌우로 내려오면서 머리끝이 밖으로 굽어진 形態를 하고 있으며, 묶은 머리는 새갈래로 하여 땡은 것 같다. 이러한 人物像은 渡來人의 首長인 듯하며, 특이한 머리형도 그들이 渡來人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하니와상들 중의 하나로 앞머리를 이마에 내려뜨린 모습을 한 것이 있는데,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머리모양은 알 수가 없지만, 양 옆으로 내려 묶은 머리뿐만 아니라 전체의 분위기는 지금까지의 하니와와는 다른 모습이다.

女子의 경우, 하니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巫女하니와의 경우는 머리를 頭頂部에서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圓環한 판과 같이 만든 머리형을 하고 있다. 반면에 一般女子의 머리형은 향아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하니와(그림 14)와 授乳하는 어머니(그림 13)의 경우는 머리 뒷쪽으로



<그림 13> 農夫像  
(東京國立博物館)

조금 큰 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鬘의 머리형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즉, 儀禮行事를 主宰하는 巫女는 일반女子와 다른 머리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女子의 경우에도 職能에 따라 머리형이 분화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冠帽은 男子하니와에서 다양한 形態의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群馬縣 佐波郡 赤堀村 出土의 농부상(그림 13)과 群馬縣 太田市 出土 하니와는 頂部가 솟은 頭巾같은 쓰개를 쓰고 있으며, 遮陽이 있는 山高帽식 쓰개는 의외로 그 예가 많아, <그림 1>의 男子像과 <그림 12>의 턱수염을 기른 人物像도 모두 頂部가 높은 형식의 모자를 쓰고 있고, <그림 3>의 경우는 遮陽은 없고 頂部만 높은 모자를 쓰고 있다.

古墳時代 中葉頃 古墳 出土品 중 金銅製의 장식금구를 붙인 裝身具로서는 冠, 帶 귀고리 신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帶이다. 帶는 首長の 服裝에 위엄을 주었을 가장 좋은 裝身具였을 것이다. 그 후 冠과 修飾이 달린 귀고리가 더해지고 金銅製의 신발이 나타나면서 首長の 正裝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帶의 본체는 가죽이었을 것이며, 가죽은 腐敗하고 대금구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하니와에는 武人의 경우에는 大刀 등을 차기 위한 帶가 있었으며, 농부는 허리에 帶를 맨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 외 裝身具로는 女子用의 빗과 簪이 있는데,



<그림 12> 턱수염을 기른 남자  
(芝山はにわ博物館)



<그림 14> 향아리를 인 여자  
(東京大學 人類學教室)

빛은 하나와 女子像에 나타난 예도 있으며 또한 寶物이 古墳에서 出土된 것도 있다. 群馬縣 伊勢崎市 安堀町 出土의 巫女하나와상, 埼玉縣 兒玉郡 兒玉町 出土의 巫女하나와상 등에는 이마에 빛이 꽃혀 있고, 埼玉縣 兒玉郡 神川村 關口 出土의 향아리를 인 女子像(그림 14)에는 측면부에 빛을 머리장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身分이나 職能과 관계없이 폭넓게 使用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녀 모두 목걸이와 귀고리, 팔찌를 하고 있었으며 발에도 足玉을 하고 있다. 古墳出土 遺物 중에서 普遍的으로 많이 사용된 寶石類로는 硬玉, 碧玉, 瑪瑙, 水晶을 비롯하여 유리, 金銀 등이 사용되었는데, 하나와에 표현된 목걸이나 귀고리 등 각종 裝身具의 경우는 이러한 寶石類에 다 끈을 꿰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9>의 巫女像은 이러한 頸式, 手玉, 足玉이 모두 갖추어진 하나와이다.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있었는데, 신은 履를 주로 신었으며, 때로는 武人의 하나와에는 반장화도 表現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하나와 人物像의 衣服에 나타난 文樣으로는 칼로 그은 線과 붉은 색으로 채색된 것이 있는

데, 文樣은 아주 단순하고 그 종류도 삼각형을 기본으로 한 톱니文樣과 물방울文樣, 青海波紋 등이 있다.

文樣에 관하여는 衣服 이외의 다른 遺物 즉 거울과 각종 金銅製品, 土器 등을 보면, 매우 복잡한 構成으로 제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와의 文樣은 製作上的 制約으로 多樣하게 表現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實際로는 보다 풍부한 文樣과 색채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群馬縣 伊勢崎市 見出土의 巫女하나와는 色과 文樣이 가장 잘 표현된 것으로 上衣에는 青海波文樣이 새겨져 있고 裳에도 高松塚古墳壁畫의 女子의 裳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세로 文樣이 새겨져 있다. 裳의 線은 주름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이 巫女像에서의 線은 裝飾用的 文樣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文樣은 衣服의 文樣을 재현하였다기보다는 토기의 文樣을 모방한 것<sup>5)</sup>으로 생각되며, 더구나 구성이 매우 단순한 점으로 보아서도 하나와를 장식하기 위한 文樣인 것으로 사료된다.

채색에 사용된 顔料는 植物性이나 礦物性이 使用되었을 것<sup>6)</sup>으로 생각되며, 하나와 人物像의 경우는 거의 적색으로 되어 있고, 드물게 흰색이 사용된 정도이다. 특히, 얼굴 부위에 彩色이 된 경우는 巫女나 貴人像에서 주로 볼 수가 있는데, 눈 주위에서부터 뺨 언저리라든가, 눈과 코, 입술 등 얼굴에 적색으로 彩色이 되어 있다. 이것은 古墳時代의 풍습으로 존재하였을 일종의 化粧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오늘날의 감각에서 말하는 化粧이라고 하기보다는 禪禮를 포함한 祭禮時만이 하는 특별한 化粧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V. 하나와의 服飾과 固有服飾과의 關係

하나와의 服飾은 上下가 분리된 2部式의 衣服으로 男子는 衣와 袴, 女子는 衣와 裳을 着用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와服飾 以前の 日本固有服飾의 樣相은 어떠하였으며, 하나와상에 나타난 衣

5) 田辺昭三, 「古墳時代の服裝と裝身具」, 『服裝文化』, No. 152, 1976, p.39.

6) 井筒雅風, 『日本女性服飾史』, 光琳社, 1989, p.21.

服은 초기에는 어떤 사람이 왜 着用하였는지, 그리고 하나와服飾 전래 이후의 固有服飾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였는지 固有服飾과 하나와服飾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하나와服飾 傳來 以前の 衣服에 관해서는 3세기에 집필된 中國의 歷史書 『三國志』의 『魏志倭人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정도이고, 考古學的 資料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책에는 3세기경 日本의 政황을 전하는 資料가 많은데, 그 중 風俗이나 衣服에 관한 記事에 文身, 結髮, 衣服의 形態, 農耕, 養蠶 등의 記事가 記述되어 있다. 이 책에 의하면, 「男子는 모두 머리를 묶어 늘어뜨리고, 형검으로 머리를 감고 있다. 衣服은 幅이 넓은 형검을 꿰매지 않고 몸에 걸치고 있다. 女子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衣服은 한 장의 천을 중앙에 구멍을 뚫어 그곳으로 목을 넣어 입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倭人의 男子는 橫幅衣, 女子는 貫頭衣를 着用하고 있고, 당시 倭人들 간에는 이 두 種類의 衣服形式이 着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記述에 의한 橫幅衣, 貫頭衣 系統의 衣服을 당시의 日本人 전체가 입었는지에 대하여는 江戸時代 이후 疑問점이 提起되어 여러 學說이 나왔다. 이른바, 藤貞幹은 그의 저서인 『衛口發』에서 上代에는 한 장의 천의 중앙에 구멍을 뚫어 머리를 넣은 후, 양 자락을 묶어 着用하는 橫幅衣 系統의 衣服만을 입었다는 說을 주장한 反面, 本居宣長은 이에 대해 저서인 『錯狂人』에서 反對의 說을 발표하였으며, 明治時代의 內藤湖南<sup>7)</sup> 등은 이것은 『漢書』 地理志에서 轉用한 것에 불과하다는 說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鳥居龍藏<sup>8)</sup>, 喜田貞吉<sup>9)</sup>, 宮本勢助<sup>10)</sup> 씨들에 의해 『魏志倭人伝』의 服飾記事는 왜인의 풍속으로서 肯定적으로 받아들

여지게 되었고, 그후 高橋健自<sup>11)</sup>, 中山太郎<sup>12)</sup> 그리고 三品彰英은 貫頭衣系의 衣服을 倭人 一般의 原始衣服이라 하였으며<sup>13)</sup>, 鳥居龍藏<sup>14)</sup>를 비롯한 여러 研究者들은 이러한 倭人의 衣服形態는 東남 아시아의 農耕民族, 南方海洋 諸民族에 公同으로 존재하였던 衣服形態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高橋健自는 日本의 固有衣服을 설정하기도 하였다<sup>15)</sup>. 이러한 여러 學說에 依據해 볼 때, 魏人이 찾아와서 見聞한 장소가 어디였던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服裝이 과연 어느 정도로 普遍성을 띤 것인지 모르겠으나, 南方系의 原始形態衣服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衣服이 개방적인 形態인 점으로 보아 弥生時代의 日本人 전체의 衣服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南方에서 전래된 벼농사문화와 함께 日本에 傳波된 衣服의 한 형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5세기 중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하나와의 2部式 衣服의 출현에 대하여 살펴보면, 三品彰英은 南方의인 貫頭衣가 騎馬習俗의 受容으로 인해 北方의인 2部式의 衣服으로 변화하였다고 指摘하였다. 그러나 人物하나와가 古墳時代 전 기간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후기에 속하는 5세기 중엽에서 7세기에 걸쳐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관동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이 說은 原始形態의 貫頭衣에서 北方系統의 衣服型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한편, 江上波夫의 騎馬民族日本征服說<sup>17)</sup>을 基底로 한 支配的인 說로, 2部式의 衣服型은 遊牧民族들의 騎馬風俗에 의해 발생한 衣服樣式으로, 中國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日本으로 電波된 騎馬文化의 影

7) 內藤湖南, 「卑弥呼考」, 『藝文』, 第1卷 第3號.

8) 鳥居龍藏, 「有史以前の日本」, 『鳥居龍藏全集』, 第1卷, 朝日新聞社, 1976.

9) 喜田貞吉, 「魏志の倭人傳-漢籍に見えたる倭人記事の解釋-」, 『歴史地理』, 第30卷.

10) 宮本勢助, 「貫頭型衣服考」, 『民族學研究』, 第2卷.

11) 高橋健自, 『日本服飾史論』, 大窪閣, 1927.

12) 中山太郎, 「魏志倭人の土俗學的研究」, 『日本民俗學』, 歷史篇.

13) 三品彰英, 「民族學からみた魏志-倭人伝」, 論文第3卷, 『神話と傳説』.

14) 鳥居龍藏, 「有史以前の日本」, 『鳥居龍藏全集』, 第1卷, 朝日新聞社, 1976.

15) 高橋健自, 『日本服飾史論』, 大窪閣, 1927. (高橋健自는 日本 古代衣服으로서 橫幅衣와 貫頭衣를 設定하였다).

16) 三品彰英, 「民族學からみた魏志-倭人伝」, 論文 第3卷, 『神話と傳説』.

17) 薩雅夫, 『遊牧騎馬民族國家』, 講談社, 1984, p.37.

響이라는說이 있다. 人物하나와가 만들어진 시기가 대략 5세기 중엽이후이며, 騎馬文化가 전파된 시기는 약 4~5세기 경이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보아 이 說은 矛盾이 없다고 하겠다. 2部式衣服은 乘馬의 風俗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으며, 바지부리를 끈으로서 묶는다든지 허리에서부터 대퇴부까지 여유있게 만들어진 짐은 승마의 服裝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이 형식의 衣服은 高溫多濕한 日本에서 자생한 衣服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한 견해로 보아서도<sup>18)</sup> 進술한 騎馬文化의 影響說은 유력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人物하나와상의 衣服은 어느 계층에서 처음으로 導入하여 着用하였는가. 小林行雄은 古墳時代의 유적에서 발견된 馬具는 고급품이 대부분이며, 實用品으로는 適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日本에 있어서의 乘馬는 초기에는 儀仗用이었음을 시사한다<sup>19)</sup>고 指摘하였다. 그렇다면, 乘馬를 위한 2部式的 衣服도 導入初期에는 儀仗用의 衣服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즉 2部式的 衣服은 처음에는 上層階級에만 着用하였던 것으로, 首長이나 首長の 權威를 象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 주변의 사람들이 儀仗用으로서 着用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根據로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石母田正은 日本 古代사회에는 首長制라는 것이 있어 국제적인 交流는 首長制를 통하여서 하고, 首長이 國際的 交流의 機能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國內의 階級分化라든지 支配形態, 國家構造에 각각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首長制는 最大最高의 首長인 天皇을 중심으로 한 支配層이 中國 및 朝鮮<sup>20)</sup>의 先進 統治技術과 國家機構, 法典 등을 도입하여 실시함으로써, 國際的인 交流가 없고 共同的 關係

에 억매어 있던 共同體 成員에 대해서는 階級的 優位感을 體系化시키는 手段이 되었다<sup>21)</sup>고 指摘하였다. 즉, 首長이 共同體成員에 대하여 階級的 優位感을 可視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당시의 先進文化였던 2部式 衣服을 採用하였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衣服의 도입은 물론 織製技術과 縫製技術의 導入을 意味한다. 日本 固有의 衣服形態는 『魏志倭人傳』 등 古文獻의 記錄<sup>22)</sup>에서와 같이 縫製를 하지 않은 衣服이라는 점에 비하면, 2部式 衣服은 縫製의 段階가 衣服完成에 있어 必須條件이다. 그런데, 當時 日本의 未洽한 技術로는 2部式 衣服의 製作은 不可能하였기 때문에, 『万葉集』<sup>23)</sup>이나 『雄略記』<sup>24)</sup>에 記述되어 있는 바와 같이 先進國에서 來朝한 縫工女나 衣縫女의 技術에 依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考古學的인 根據로도 鐵針이 首長層의 古墳에서만 出土되고 있다<sup>25)</sup>는 점에서도 首長層의 2部式 衣服의 着用과 縫製의 技術의 關係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제작된 2部式 衣服은 초기에는 首長の 權威를 可視적으로 表現하기 위해 儀仗用으로 도입하였을 것이다. 한편, 首長層과 周邊사람들의 衣服製作을 위해 渡來한 歸化人들의 技術은 庶民層에게 傳授되어<sup>26)</sup>, 8세기까지는 직접 국가에 關與를 하는 官戶와 官奴까지 2部式的 衣服을 着用하기에 이르렀으나<sup>27)</sup>, 여전히 庶民層은 乘馬習俗의 未定着, 그리고 織物生産力의 不足 등으로 말미암아 貫頭衣系統의 固有服飾을 着用하였을 것으로 思料된다. 前述의 人物하나와상에 表現된 衣服의 形態가 모두 2部式的 衣服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5세기 중엽무렵, 固有服飾과 2部式的 衣服이 共存하였으며, 固有服飾은 庶民層이 着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농부나 一般女子의 하나와상은 모두 上半身만 표

18) 『日本の考古學』, V, 1969.

19) 小林行雄, 「上代日本における乘馬の風習」, 『史林』, 34卷3號.

20) 朝鮮이라는 名稱의 사용은 본 연구의 논의의 이해를 위해 당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하던 표현을 그대로 썼음을 밝혀둔다.

21)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國家』, 1976.

22) 『魏志倭人傳』, 略無縫, 『山海經』-衣服無針功, 『常陸國風土記』久慈郡條 등 참조.

23) 『万葉集』卷7의 1273, 住吉のはづまの君が馬乘衣, さひづらふ 漢女をすへて 縫へる衣ぞ.

24) 『雄略記』14年正月條, 一身狹村主青等共 吳國使 將 吳所獻手末才伎, 漢織吳織及衣縫兒媛等 泊 住吉津.

25) 『月の輪古墳』, 月の輪古墳刊行會編.

26) 小林行雄, 「上代日本における乘馬の風習」, 『史林』, 34卷3號.

27)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衣生活研究會, 1993, p. 43.

현된 半身像으로 製作이 된 것은 下半身の 衣服을 省略한 것이 아니라 上衣 즉, 貫頭衣系統의 衣服을 着用하고 있기 때문에 造形上 下半身の 製作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正倉院 所藏의 早袖는 위와 같은 狀況下에서 서민들이 貫頭衣系統의 衣服과 並行하여 着用함으로써, 2部式의 衣服效果를 내는데 사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時代的으로 후의 것이지만, 8세기의 농민이 스킨형에 속하는 衣服을 着用하였으며<sup>28)</sup>, 『今昔物語』에는 仁和寺에서 僧의 시중을 드는 下童이 調布로 만든 옷을 着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는 「여름에는 소매도 없는 옷을 입고, 그 길이는 오금까지이며, 겨울에는 두 개를 입고, 여름에는 한 개를 입었다(夏ハ袖モ无キ衣ニシテ, 長ハ本ニシテ, 冬ハ二ツ許, 夏ハ一ツ着セテゾ)」<sup>29)</sup>라고 記述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調」이란 『倭名類聚抄』에 「調大素經注云調曲脚中也」라고 되어 있어 脚의 중앙부, 무릎의 뒤의 들어간 부분을 가리킨다. 즉, 律令體制下의 농민이 着用하였던 것과 같은 形態의 衣服인,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오는 衣服이 『今昔物語』가 만들어진 12세기 전후에도 사회의 最下層民의 衣服으로서 着用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3세기 중엽의 『古今著聞集』 20卷에는 「下ろうの着る手なしという布着物を着て」이라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手なし」 즉, 「소매가 없는」이라는 것도 『今昔物語』에서 가리키는 衣服形態와 같은 것이라 생각되며, 이것도 8세기의 농민들의 衣服이었던 것이 階層을 限定시켜 下ろう 즉 下層民이 着用하는 衣服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다면 日本 固有의 衣服인 貫頭衣와 橫幅衣는 日本의 高温多濕한 自然環境에 適合하고 또 下層民의 勞動에도 適合한 型이라는 점으로 인하여<sup>30)</sup>, 下層民에게는 계속 着用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 V. 結 言

本 研究는 日本 古墳時代의 服飾 중 하나와에

나타난 服飾에 관하여 考察한 것으로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하나와에 나타난 衣服은 上衣와 下衣로 구성된 2部式 衣服으로, 男子는 衣와 袴, 女子는 衣와 裳을 着用하고 있었다. 上衣인 衣는 자락이 둔부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領은 盤領과 垂領의 두 종류가 있으며, 여밈의 형식은 左衽이 많으나, 드물게 右衽도 있는데, 여밈은 위 아래 두곳을 끈으로 매고 고정시켰거나 가슴에 붙은 끈만으로 고정시킨 경우도 있었다. 소매는 모두 簡袖로 되어 있으며, 소매부분을 생략한 것도 있다. 허리에는 帶을 매었으며, 武人들은 여기에 劍과 활 팔찌 등을 찼다. 男子의 下衣인 袴는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만큼 여유롭게 만들어져 있으며, 女子의 下衣인 裳의 길이는 무릎 부근이나 그보다 약간 더 긴 정도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冠帽를 썼으며, 목걸이 귀고리 팔찌, 足玉과 같은 각종 裝身具로 장식을 하였다.

이러한 2部式 衣服은 導入 初期에는 首長의 權威를 象徴的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 주변의 사람들이 儀仗用으로 着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部式 衣服이 導入되기 前의 固有服飾은, 南方系의 原始形態衣服인 橫幅衣와 貫頭衣系統의 衣服이었으며, 이것은 日本의 高温多濕한 自然環境에 적합하고 下層民의 노동에 적합하기 때문에, 2部式 衣服傳來 이후에도 下層民에게 계속 着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古墳時代에는 日本에서는 처음으로 統一政權이 成立하였고 階級支配가 確立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服飾全般에 걸쳐 이러한 점이 강하게 反映되어 階級的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前代의 弥生時代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參考文獻

- 猪熊兼繁, 『古代の服飾』, 至文堂, 1962.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衣生活研究會, 1993.  
井筒雅風, 『日本女性服飾史』, 光琳社, 1989.

28) 武田佐知子, 「律令制下の農民の衣服について」, 『女子美術大學紀要』, 11號, 1981.

29) 『今昔物語』, 卷15의 54話.

30) 猪熊兼繁, 『古代の服飾』, 至文堂, 1962.

- 小林行雄, 「上代日本における乘馬の風習」, 『史林』34卷3號.
- 磯雅夫, 『遊牧騎馬民族國家』, 講談社, 1984.
- 中井長子, 相川佳子共著, 『服裝史』, 相川書房, 1984.
- 橋本增吉, 『東洋史上より觀たる日本上古史研究-邪馬台國論考』.
- 増田美子, 『古代服飾の研究』, 源流社, 1995.
- 小林行雄, 『埴輪』, 日本陶磁大系3, 平凡社, 1998.
- 田辺昭三, 「古墳時代の服裝と裝身具」, 『服裝文化』, No.152, 1976.
- 鳥居龍藏, 「有史以前の日本」, 『鳥居龍藏全集』, 第1卷, 朝日新聞社, 1976.
- 齊藤忠, 吉川逸治, 『原色日本の美術1』, 小學館, 1970.
- 『万葉集』, 卷7의 1273.
- 関斗基 編著, 『日本の歴史』, 知識産業社, 1993.
- Fomey. J. A. C.,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ress and Appearance and Retention of Ethnic Identity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1980.